

광주·전남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논의 '속도'

정성홍·장관호 “최대한 빨리” 한목소리
시·도민공천위, 11일께 공천률 등 결정
양 후보 정책발표...現시·도교육감 비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광주·전남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 단일후보인 정성홍 예비후보와 민주진보교육감 전남도민공천위원회 추대후보인 장관호 예비후보는 8일 '시·도민

공천위원회가 최대한 빨리 단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전 장관호 예비후보와 정성홍 예비후보는 광주시교육청 기자회견에서 1시간 간격을 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발표와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관호 예비후보는 "단일화는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시민공천위원회와 도민공천위원회가 추진하는 합의안에 대해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을 도민공천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도민공천위가 확대된 형태의 특별시공천위를 구성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늦어도

4월 말이면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성홍 예비후보도 "광주·전남 두 진영에서 힘을 모아 하나가 돼 청렴도 쏠찌의 현 교육감에 대응해야 한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결단을 내리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전남 지역 민주진보교육감 시·도민공천위는 지난 3일 후보 단일화를 위한 첫 만남을 가진 데 이어, 이날 오후 두 번째 만남을 통해 단일화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양 공천위는 공천위의 명칭 변경과 교육정책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으며, 공천률의 경우 오는 11일 3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두 예비후보는 정책발표를 통해 현 시·도교육감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장관호 예비후보는 "2025년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광주교육청은 나란히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사법리스크, 수백억원 예산 낭비, 역사 왜곡 방조 등이 현 전남광주교육감이 남긴 성적표"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무능하고 부패한 현 교육감들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국민주권정부의 기본사회를 실현할 교육 국가책임제를 전남광주에서 기본교육으로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성홍 예비후보도 "최근 광주·전남에서 청

소년 도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일탈을 넘어 절도·사기·폭력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 당국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실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인 정성홍 예비후보는 광주시민공천위의 공천단 투표와 여론 조사를 통해 김용태·오경미 출마예정자들과 경선을 거쳐 단일후보로 선출됐으며, 전교조 전남지부장 출신인 장관호 예비후보는 전남도민공천위가 추진한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에서 공천단 찬반 투표를 통해 추대됐다. /박선욱기자

혁신당 “민주, 3대 정치개혁안 이행해야”

중대선거구 확대·비례 20% 상향 요구
조국혁신당 서용진 원내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광주·전남 3대 정치개혁안을 제시하고 신속 이행을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개혁 5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비례대표 증원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합의를 발표했다"며 "완전한 내란 청산과 지방정치 혁신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개혁위 시계는 종착지에 다가가고 있지만 논의는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관성과

이해타산, 국민의힘의 어깃장에 가로 막혀 있다"며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지금 광주·전남의 의회 구조 개편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원내대표는 "지역·민주적 균형을 갖춘 광역의회 구성 대신 민주당 일당 구조의 '의석 보존' 전략만 난무한 실정"이라며 "사실상 현행 구도를 유지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게리맨더링"이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책임 정치로, 혁신의 언어로 응답해야 한다"며 ▲기초의원 전 지역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비율 최소 20% 확대 등을 요구했다. /변은진기자



조국혁신당 서용진 원내대표가 8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전남 정치개혁을 위한 '3대 개혁안'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주의와 일당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명창환 여수시장 예비후보 11일 선거사무소 개소

산업·에너지·민생·관광 대전환 4대 전략
조국혁신당 명창환 여수시장 예비후보가 오는 1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 선거행보에 돌입한다. 명 후보는 여수시 망마로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이날 오전 10시30분 개소식을 개최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참석해 개소식을 축하한 뒤 여수지역 민생투어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명 후보는 개소식에서 여수의 미래를 바꿀 핵심 공약 '여수 4대 대전환' 비전을 제시한다. 산업·에너지·민생·관광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전환 전략을 통해 침체된 여수의 흐름을 다시 성장 궤도로 돌려세우겠다는 구상을 밝힐 방침이다. /양시원기자

명창환 후보는 "지금의 여수는 더 이상 준비하고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과 지방을 모두 경험한 국가대표 행정전문가로서 연습 없이 첫날부터 바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명 후보는 "여수의 산업, 관광, 민생이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위기 속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며 "현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해결해 나가는 실행력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 후보는 전남도 행정부지사, 순천시 부시장,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여수시 주삼동장 등을 역임한 30년 경력의 행정 전문가다. /양시원기자

강기정 이어 신정훈도 김영록 지원 나설까

姜캠프 핵심 인원 김캠프 합류 총력 지원
후, “金 지지” 선언 시점 놓고 속고 거듭
후캠프 일부는 민행배 후보 캠프로 이탈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강기정 예비후보(광주시장 직무정지)가 결선투표를 앞두고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 지원을 공식화하면서 광주지역 표심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본격선 과정에서 강 전 후보와 단일화를 이뤘던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도 김 후보 지원 여부를 놓고 속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연대 성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김영록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강기정 전

후보 캠프 조직본부장급 인사 150-200명은 전남 캠프 사무실에서 김 후보 측 선대위원장급 핵심 인사들과 결의대회를 열어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한 뒤 결선투표를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강 전 후보도 7일 오전 김영록 후보와 함께 광주지역 5개 구청장과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공동 행보를 공식화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본격선에서 탈락한 신정훈 전 후보의 선택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행배 후보와 김영록 후보는 모두 지난 7일 신 전 후보 자택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 후보는 5분 만에 발길을 돌렸고, 김 후보는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 강 전 후보 역시 이날 신 전 후보와 만나 향후 행보를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후보는 본격선 직후 페이스북에 신 전 후보를 위

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 '최선 대신 차선, 최악 대신 차악을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김 후보에 대한 지원에 나서달라는 요구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 전 후보가 조만간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결선투표 지원에 나설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신 전 후보가 김 후보 지지 선언 시점을 놓고 속고 중이라는 게 김 후보 측 관계자의 전언이다. 반면, 신 전 후보 캠프 인사 중 일부와 동부권 조직은 민행배 후보 캠프로 합류했다. 합류 인사는 신 전 후보 캠프 최형식 선거총괄본부장, 오기만 조직총괄본부장, 조명재 조직특별본부장, 김휘 미디어총괄본부장, 김선일 전남혁신포럼 대표 등이다. /김재정기자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이 “대·자·보”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사업용 운전자(택시, 버스, 화물 등) 법정교육으로 대·자·보 시행을 위한 교통 문화 정착
- 어린이교통공원(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는 유년 시절부터 “대·자·보” 교통안전 체험교육 강화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찾아가는 어르신교육으로 대자보 교통안전 인식 전환 운동
- TBN 교통방송과 함께하는 대자보 인문학 강의
-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협업을 통한 미래 기후 교통 환경 대응 역량 강화
- 학생(초·중·고)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자전거·킥보드 문화 정착

교통안전캠페인

운수 종사자 교육

어르신 교육

학생 교육

어린이 교육